

조선대 사범대, 초임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학장 박현주) 부설 교육연수원(원장 박현주)은 11일 사범대 3층 강의실에서 '2019년 초임 특수학급 담당교사 직무 연수' 개강식을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 '2019 장학증서 수여식'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죽호학원에서 '2019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광주 금호고·금호중양고·금파공고 등 성적 우수 학생 90명에게 장학금 1억7000만원을 전달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제공>

수원청연한방·수원센트럴병원 사회공헌 협력



수원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신준혁)·수원청연오양병원(대표원장 고용준)은 최근 수원센트럴병원(대표원장 고길식)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청연한방병원 제공>

산업인력공단 광주지부, 서포터즈 고용정책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대수)는 최근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서포터즈 50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및 고용채류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5·18 외곡 뿌리 뽑으려면 학생부터 잘 가르쳐야”

5·18 교육 조례안 대표 발의 조철기 충남도의원

아산 토박이로 김대중 사상 존경... 지역정치 반영 노력  
“전 국민 알아야 할 역사... 민주주의 가치 알리는 건 어른 책무”

“5·18광주민주화운동 소식을 중학교 3학년 때 접했어요. 당시 언론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했어요. 39년이 지난 지금에도 5·18을 왜곡하는 망언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

“5·18 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55·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도의회는 5·18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을 포함한 학군단 소속 박원철(사진 맨 왼쪽) 소위가 최근 육군학관생사학교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ROTC 57기 임관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돼 경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상장과 메달을 전수받았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충남도는 광주·전남에 이어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하게 된다.

충남 아산에서 나고 자란 조 의원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정책을 따르고 싶어했다.

그는 지난 1987년 평화민주당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아산시의원을 2차례 지내면서 김전 대통령의 정신을 지역정치에 반영하려 노력해왔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는 군대에 있었어요. 서슬퍼런 시대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었죠. 수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 시점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는 건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조 의원을 포함한 충남도의원 11명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관련 전국 광역의원 합동 규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참가를 독려했다고 한다.

조 의원과 동료 의원의 의지는 이번 조례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문이 대표적이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해 운영하고,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에도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남에 이어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하게 된다.

충남 아산에서 나고 자란 조 의원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정책을 따르고 싶어했다.

그는 지난 1987년 평화민주당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아산시의원을 2차례 지내면서 김전 대통령의 정신을 지역정치에 반영하려 노력해왔다.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는 군대에 있었어요. 서슬퍼런 시대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제대로 접할 수 없었죠. 수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 시점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는 건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조 의원을 포함한 충남도의원 11명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관련 전국 광역의원 합동 규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참가를 독려했다고 한다.

조 의원과 동료 의원의 의지는 이번 조례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문이 대표적이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해 운영하고,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에도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운동 망언 관련 전국 광역의원 합동 규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참가를 독려했다고 한다.

조 의원과 동료 의원의 의지는 이번 조례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년 교육 및 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문이 대표적이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과정 운영계획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해 운영하고,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에도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조 의원은 “2년 전 4월 세월호가 거지된 목포신항에 들른 뒤 5·18 묘역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만이 아닌 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5·18과 관련된 망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충남에서도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남대 ROTC 사상 첫 대통령상 배출

박원철 소위, 동계입영훈련 성적 탁월·최우수 후보생 활약

전남대학교 ROTC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상 수상자가 배출됐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제1051(여수) 학군단 소속 박원철(사진 맨 왼쪽) 소위가 최근 육군학관생사학교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ROTC 57기 임관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돼 경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상장과 메달을 전수받았다.

박 소위는 3·4학년 하계 및 동계입영훈련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면서 전남대학교와 학군단의 명예를 드높였고, 학군단내에서도 중대장 및 대대장 후보생을 차례로 맡는 등 학군단을 대표하는 최우수 후보생으로 활약했다. 전공학업에도 충실해 종합평점 3.88의 우수성적을 거두며, 학내의 장학금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수원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신준혁)·수원청연오양병원(대표원장 고용준)은 최근 수원센트럴병원(대표원장 고길식)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청연한방병원 제공>

신임 광주시선관위원장  
박병철 광주지법원장 선출

광주시선거판리위원회는 11일 전체 위원 회의를 열어박병철(61·사법연수원 17기) 광주지법원장을 제28대 시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 출신인 박 신임 위원장은 광주 제일고,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법, 해남·목포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강종만 전 영광군수  
조선대 법과대 객원교수 임용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 객원교수로 임용돼 강의를 시작한다.

법학박사인 강 전군수는 영광군수와 전남도의회 의원, 영광군의회 의장, 백수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강 전 군수는 광주 동신고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광주대 법학과, 광주대 산업대학원(법학석사), 전남대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조선대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 美 SNL 진행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가 미국 NBC 방송 코미디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서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진행을 맡게 된다.

샌드라 오의 인스타그램에 “3월 30일, 샌드라 오, 타임인팔라(함께 출연하는 가수)”라고 적힌 메모 사진을 올리고 “세상에! 엄청나게 재밌겠다”라며 유쾌하게 SNL 출연 소식을 알렸다고 UPI 통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샌드라 오에 앞서 영화 ‘킬 빌’로 스타덤에 오른 중국계 미국 배우 루시 리우가 지난 2005년에, 할리우드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 배우 겸 퍼퍼 아파티나가 작년 10월에 각각 SNL 진행자로 출연했다.



중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파티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렸을 적 리우가 출연한 SNL 에피소드는 내게 정말 중요한 의미였다”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다”며 아시아계 여성의 세 번째 SNL 진행 소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사회를 보기도 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이동명(전 광주일보 사진부장)·김덕자씨 딸 서현양, 구창사·오정에서 아들 세 천군=16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광산구 도전동 드림 웨딩홀 2층 CN홀.  
▲한승일(무등산생태병원 행정원장)·김옥순씨 장남 민수(삼성전자 서부서비스팀장)·김순식·정해숙씨 장녀 미리(남원한울학교 교사)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시 북구 문흥동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동창회

▲광주여자고등학교 동창회 이사회(회장 박규례)=12일(화) 낮 12시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

중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2일(화) 오후 5시 30분 지원회의실 062-225-5636.

▲진주강씨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원구) 정기총회=16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유림회관.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19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금)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알림

▲광주여성재단 ‘201